



1. 들어가는 말

환경문제에 대한 아시아 민간단체의 입장 및 활동 내역은 당연히 아시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천차 만별의 양상을 보인다. 민간단체의 활동 내용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소속국가의 입장의 차이에 크게 좌우된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남북대립, 즉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립은 아시아 내에서도 뚜렷하다. 비록 산업

아시아 민간단체들의 환경운동



이진아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화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경제규모와 현재의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세계 정상을 달리는 일본이 '북' 즉 선진국으로서 동남아 지역 환경파괴의 주범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열대림 개발 문제에 국가 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한 동남아시아(인도차이나) 국가들, 기후변동과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가 황폐해져가는 인도 주변 국가들이 '남' 즉 후진국의 위치에 있어, 적어도 환경문제에 관한 한 명백한 대립관계를 갖는다.

한국의 입장은 대단히 미묘하다. 국제적으로는 짧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는 후진국으로서 성장해왔지만, 성장에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진국의 입장에 설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처럼 환경보전을 앞세우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한 어중간한 처지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모든 정책 기조가 아직도 산업입국이라는 성장 우선책에 치우쳐 있지만, 급속한 환경파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환경의식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내의 환경운동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지만, 국제적 환경운동의 흐름에 비추어 한국의 환경운동을 간단히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 있을 듯하다.

2. 일본의 환경운동

일본의 환경운동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도 긴 편이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세가지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적인 환경오염에 맞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반공해 운동에서 성장해온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환경운동이다. 일본은 현재는 경제대국으로 명백히 선진국 대열에 속하나 후발 산업국가로 입신할 때는 구미의 선진국에서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공해산업을 수입하여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미나마타 병, 이타이이타이 병, 요카이치천식 등 폐수 및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병이 세계적으로 공해병의 대명사가 될 만큼 유명한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해를 유발하는 국가 정책이나 기업 활동에 맞서 지역 주민들은 자구책으로서 환경운동을 이어왔으며, 이것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환경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초기단계의 환경운동 발생지였던 공장지대의 집중적인 오염 외에도, 핵시설, 소각장, 매립지, 하수처리장 등 소위 혐오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주민운동, 골프장, 리조트 시설 등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는 운동, 지역의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감시 및 개선 요구 운동들도 이 계열을 잇고 있다.

두번째로 생협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보급 운동이나,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 구매 및 소비문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운동, 주로 지방자치체와의 역할 분담에서 일어나는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 운동 등 생활 캠페인 차원의 시민운동이다.

생협운동은 유기농업 운동,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운동과 연대 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의 유통, 또 이런 활동을 통한 주부들의 사회적 유대 활성화 운동으로서 착실히 성장해왔지만, 아직까지 전체 상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산지, 첨가물, 안전사용일자 표기 등으로 최소한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소비자 운동을 통해 성과

가 진전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 분야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운동이다. 지역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책이 통합성을 보이는 데다가, 국토가 협소하여 주로 소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자신의 세금과 폐기물 처리비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뒷받침되어 이에 관한 주민들의 협력이 비교적 쉽게 도출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문제 해결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지역적으로 이 문제에 앞장서서 이끌어온 전문가, 주부, 기타 적극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의 움직임으로 지구환경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거나 혹은 보조하는 흐름을 들 수 있다. 환경기술이 발달하고 자금력이 강한 일본은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부상하던 있으며, 따라서 일부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하였다.

일본은 국내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는 비교적 성공을 한 편이지만, 이것은 자국내 공해산업을 후진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자원 빈국이어서 큰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의 열대림 등 타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일본 내의 지구환경 관련 단체 중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동에 맞서는 단체도 있고,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도자적 위치를 강조하는 친정부적인 단체도 있다. 아직까지 앞 두 유형의 단체들에 비해 수적으로는 비중이 적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에서도 지구환경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3. 후진 지역의 환경운동 · 인도차이나반도 및 인도 주변 국가들

아시아에 있어서 후진 지역인 필리핀, 말레이자

아, 태일란드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 있어서 환경운동의 전반적인 특징은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차원의 환경운동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이들 국가의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역량이 성숙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지구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서구의 큰 환경단체들이 이들 단체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들 국가의 정부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이들의 활동을 묵인 내지 조장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남북대립에 기초한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이 문제 해결에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동참,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국의 입장이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상당히 존중되어 왔다. 여기서 선진국 정부들은 지구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후진국이 개발을 자제해줄 것을 주장하고, 후진국 정부들은 선진국이 환경파괴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후진국에게 원조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팽팽히 맞서왔다.

민간단체의 입장을 보면, 환경의식에서 앞선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선진국 정부의 이기주의를 견제해줄 후진국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려 하고, 후진국 민간단체들은 기꺼이 여기에 동참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얻은 역량으로 국내 환경문제에서도 활동을 하려한다.

이들 국가의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기 용이하며, 이 점은 한국이나 일본의 민간단체들보다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의 핵심에 접근하기 쉬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메카니즘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동남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이다. 말레이시아는 웬만한 사회운동이 융납할 수 없는, 매우 비민주적인 정치제도 및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엘리트 중에서 구미에서 교육을 받아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갖춘 이들에게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운동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법률적 상담을 해주는 정도였으며, 환경운동도 이와 같은 흐름

46

일본이 '북' 측 선진국으로서 동남아 지역 환경파괴의 주범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열대림 개발 문제에 국가 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한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국가들, 기후변등과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가 황폐해져가는 인도 주변 국가들이 '남' 측 후진국의 위치에 있어, 적어도 환경문제에 관한 한 명백한 대립관계를 갖는다.

99

에서 싸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는 높은 환경의식과 상당한 자금력을 갖춘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이 이들 단체를 지원하여 지구환경파괴에 적용하는 선진국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데 높은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준다. 말레이시아 정부로 보면, 그 내용이 후진국의 자금 지원 요구 등 자국의 이기주의와 맞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묵인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동남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 특히 이들은 열대우림 국가로 지구환경 중에서 큰 현안의 당사자이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또한 운동의 담당자 중에 구미에서 유학을 한 엘리트들이 많아, 이론적인 수준이 높아, '제3세계 환경론'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환경운동 이론의 중요한 흐름을 창출하는 주도 세력이기도 하다.

여기 비해 인도 및 그 주변 국가들은 보다 국내 환경운동의 경험과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인도의 경우 유명한 보팔 찬사 등 선진국이 수출한 공해산업으로 인한 뼈 아픈 피해의 경험과, 나루마다 담을 위시하여 넓은 국토의 자연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 공사로 인한 환경 및 지역사회 파괴의 경험, 소위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법의 강제적인 도입으로 농촌사회와 파괴되고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했던 경험 등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부 및 정부 뒤에 숨은 다국적 기업의 환경 착취에 산발적이거나 지역을 중심으로 꾸

준히 주민운동이 전개되어 왔었다.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기후변동의 피해로 자연재해의 참극이 되풀이되는 현장인 만큼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민간단체는 동남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과 후진국가로서 지구환경 문제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며, 이것이 선진국 환경단체의 지원 및 정부의 목인 내지는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환경 관련 운동 세력이 성장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도 민간단체의 성격에 따라, 정부 혹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종사하는 단체에서부터 피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단체에까지 많은 차이가 있음은 다른 국가의 경우와 같음은 물론이다.

4. 국제적 동향 속에서 한국 민간단체의 위치

앞서 말했듯이 지구환경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미묘하다. 지구환경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거부할 수 없음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자는 선진국과 목소리를 같이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구환경 문제를 운위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답갈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인, 아니 회피적인 자세를 갖는 것 같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보더라도 우선 국내적으로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고, 여기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오히려 후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비하면 극히 부부적인 대응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해외여행이 지극히 어려웠던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국제적인 활동의 경험이 일반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했던 현실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제와 거리를 둘 수 없다. 지구환경 악화는 국내환경에 어떠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동참하는 것은 경제적인 고려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관련 각종 협약이 속속 채택되고, 이것이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이 정한 '의제 21 수행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인 1997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가입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서 합당한 환경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구환경 문제는 강 건너 불이기는 커녕 발등의 불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다고 보겠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환경단체의 할 일 일 것이다.

환경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의 환경문제는 지구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구환경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또 해외 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며 또한 꼭 필요한 일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거취는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까지 경제성장의 신화를 낳은 국가로서 많은 후진지역의 모델이 되어왔는데, 동시에 환경파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정이다.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할 일이 많다고 보겠다.

▣ 바로잡음 ▣

환경보전 제253호(4월 15일자 발행)

기획특집③ 「원불교의 교리와 오늘의 환경문제」

중 11면의 '四思'를 '四恩'으로 바로 잡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